P-132

경, 중등도의 이식신 기능 저하를 보이는 칼시뉴린억제제 복용 환자에서 시행한 시롤리무스 전환 요법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[1], 해부병리과[2]

전연주[1] · 강석휘[1] · 황현석[1] · 형복진[1] · 이소영[1] · 최영진[2]
최범순[1] · 박철휘[1] · 김용수[1] · 최의진[1] · 양철우[1]

A Clinical Experience of Conversion Therapy from Calcineurin Inhibitors to Sirolimus in Kidney Recipients with Mild to Moderate Graft Insufficiency

Youn-Joo Jeon[1], Seok Hui Kang[1], Hyeon Seok Hwang[1], Bok Jin Hyoung[1], So Young Lee[1]
Yeong Jin Choi[2], Bum Soon Choi[1], Cheol Whee Park[1], Yong Soo Kim[1], Euy Jin Choi[1], Chul Woo Yang[1]

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[1], Department of Pathology[2]

목적 : 칼시뉴린 억제제의 등장으로 이식 후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나 약제 자체에 의한 신독성이 문제가 되어왔다. 칼시뉴린 억제제를 사용하며 경, 중등도의 이식신기능 저하를 보이는 신이식 환자에서 sirolimus로의 전환요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Cockcroft-Gault 법으로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이 40-90 mL/min 이며 단백뇨가 300 mg/day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시롤리무스는 초기 부하용량으로 6 mg을 투여하였고 이후 immunoassay 검사를 통해 약물 농도를 7-15 ng/mL가 되도록 유지하였다. 칼시뉴린 억제제는 시롤리무스 전환 첫 날에 25% 감량하였고 이후 1주에 25%씩 감량하여 4주 동안 철회 완료 하였다. 모든 환자는 전환요법 이전에 이식 신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.

결과 : 1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3.6세 (31-55)였다. 7명의 공여자는 생체 공여자였고 4명은 사체 공여자였다. HLA 부적합은 평균 3.9개였다. 11명 모두 4주 이내에 성공적으로 칼시뉴린 억제제를 투여 철회하여 시롤리무스로 전환하였다. 11명의 환자 중에서 8명이 시롤리무스를 투여한 첫날에 비해 5% 이상의 사구체 여과율의 상승을 보였다. 이러한 사구체 여과율의 상승은 주로 시롤리무스 전환요법 후 4주 이내에 이루어졌다. 전환요법 전에 시행한 이식 신 조직 검사에서 만성 이식신변화 grade1 이상의 거부반응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. 단 한 명의 환자에서만 칼시뉴린 억제제에 의한 신병증 소견이 있었다. 전환 요법을 지속하던 중 한명의 환자에서 투여 12주에 간질성 폐렴 소견 있어 시롤리무스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폐병변은 호전되었다. 2명의 환자에서 단백뇨가 발생하였으나 한 환자에서만 지속되었다. 모든 환자에서 상처 감염이나 임파종은 나타나지 않았다. 모든 환자에서 시롤리무스 전환요법에 의한 급성거부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. 현재까지 BK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없었다

결론 : 경, 중등도의 이식 신 기능 저하를 보이는 신이식 환자에서 시롤리무스로의 전환요법은 이식 신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.

Key Words : 칼시뉴린 억제제, 시롤리무스, 신장이식
Calcineurin inhibitors, Sirolimus, Kidney transplantation